

아산군 영인면 월선리에 임 옥선생의 영전각이 있다.

임옥선생의 본관은 장흥이며 자는 보로 고려때 문하시중을 지낸 임원후의 16대 손이다.

그는 어릴적부터 총명하였으며 1689년(숙종 6년)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창성, 삼수, 영흥 부사 등을 역임했다.

그 당시 이 인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준경의 후손으로 본관은 광주였다. 김 일경일파로서 반란의 마음을 품고 있던 그는 영조 4년(1728)에 남인의 잔당으로서 난을 일으켰다.

남인 김 일경의 아들 김 영해와 목시룡이 이 인좌, 정 희량, 김 중기 등과 결탁하여영조를 내쫓고 밀풍군을 내세우고자 일어났다. 그의 기세는 당당하였다. 먼저 청주를 습격하여 병마절도사 이 봉상을 죽였다. 그는 더욱 기세 등등하여 대원수라 자칭하였다.

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래 활개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도인 것이다. 의로운 임 옥과 오 명항, 박 찬신, 종 사관, 박 문수의 관군들은 서울로 향하려 하는 이 무리들을 안성 죽산에서 무찔렀다. 용인에서 완전히 패한 이 인좌는 잡히어 참령을 당하였다.

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역적을 평정한 임 옥은 그 공을 높이 사게 됐다.

분무원공 1등공신에 책훈되었고 녹전을 받고 뒤에 전라 좌수사를 지냈다.

이러한 훌륭한 일을 한 공훈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종중에서 1878년에 영인면 월선리에 영전각을 세웠다.

"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"

이라고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나 있듯이 나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곧 나와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것이 되리라고 믿는다.

사람은 항상 의롭게 살아야 한다.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며 값지게 희생도 감수하는 그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함을 느끼게 한다.